총의치 수직고경 설정에 대한 고찰

광주기독병원치과 보철과

정 준 용

Ⅰ. 서 론

총의치나 기타 보철물의 제작에 있어서, 이미 상실된 수직고경(vertical dimension)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환자가 의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환자의 악구강계의 기능회복 및 심미성의 회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수직고경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 보철물의 저작효율이 떨어지고, 안면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며, 측두하악 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무치악부위 치조제의 통증(soreness)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얼굴이 길어 보이거나 하악 후퇴증(retrognathic mandible), 턱의 외소(chin deficiency)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반면 너무 낮은 수직고경을 가진 경우는 안면 하방부위가 위축되어 입술과 볼이 쳐지는 인상을 주게 하며, 환자의 얼굴이 더욱 주름지고 나이들어 보이게 할 수 있으며, 구각구순염(angular cheilitis)을 초래하기도 한다[1]. 따라서 수직고경의 측정과 임상 적용은 치과의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 많은 연구가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념과 임상적인 응용은 아직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앞서 연구했던 선배들의 수직 고경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여, 그 역사적 흐름과 현재의 쟁점을 이해하고, 실제 임상에서 총의치를 제작할 때, 수직고경을 채득하는 과정들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Ⅱ. 용어 및 개념

1. 안정위 수직고경(vertical dimension in rest position : VDR)

환자의 자세를 똑바로 하고(upright position), 어깨를 편안히 늘어뜨린 상태에서, 상하악에 임의로 설정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르며, 주로 코끝과 턱끝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에 근육은 최소한의 긴장상태를 유지한다.

2. 중심위 수직고경(vertical dimension in centric relation : VDO)

무치악 환자의 구강에서 얻어진 교합은 대체로 교합위와 중심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합위(centric occlusion)나 중심위(centric relation)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고 본다.

3. 자유로 간극 (Freeway space)

환자의 안정위 상태에 있을 때, 소구치 부위에서 존재하는 2-4mm정도의 간격으로(그림1), 이는 개인차가 많고(1-13mm), 또한 환자의 자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 설정을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치아의 마모도 및 이에 대한 보상 맹출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